

대행 스님

남이 잘하는 거 끌어오려 말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재차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여러분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정말이지 이거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갈 때, 어디를 쳐다보면 딴 데 쳐다봐지지가 않습니다. 무심코 그냥, 그냥 쳐다보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그것이 그냥 뜻으로다가 떠올라서 그냥 여기에 감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그냥 내 눈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싱긋이 웃음이 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뼈저린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뜻으로 이렇게 항상 가설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설이 돼 있는 그 자체를 아시려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들이고 내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휴, 내가 이거 둘을 놓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고 망설이지 말고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냥 집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요리로 갈까, 조리로 갈까? 요거는 좀 높고 요건 얕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네겐 거기가 높다. 가지 마라." 뭐, 어째라.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얘깁니다. 죽을 때도 그냥 혼자 가고 나올 때도 혼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때도 혼자 해야죠. 남의 소리 듣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들어서 망가지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뜻을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간이 나쁘다, 또는 어떤 괴로움이 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러는 것도 용도에 따라서 여기다 맡겨 놓고, 맡겨 놓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그게 컴퓨터 눌러지듯 자동적으로 눌러져서 가설이 된 거기에 그 액이 딱 온다. 그러니까 모든 일체 만물 만생이 무정물까지도, 풀 한 포기까지도, 산에 있는 모든 무정물도 일치돼서 가설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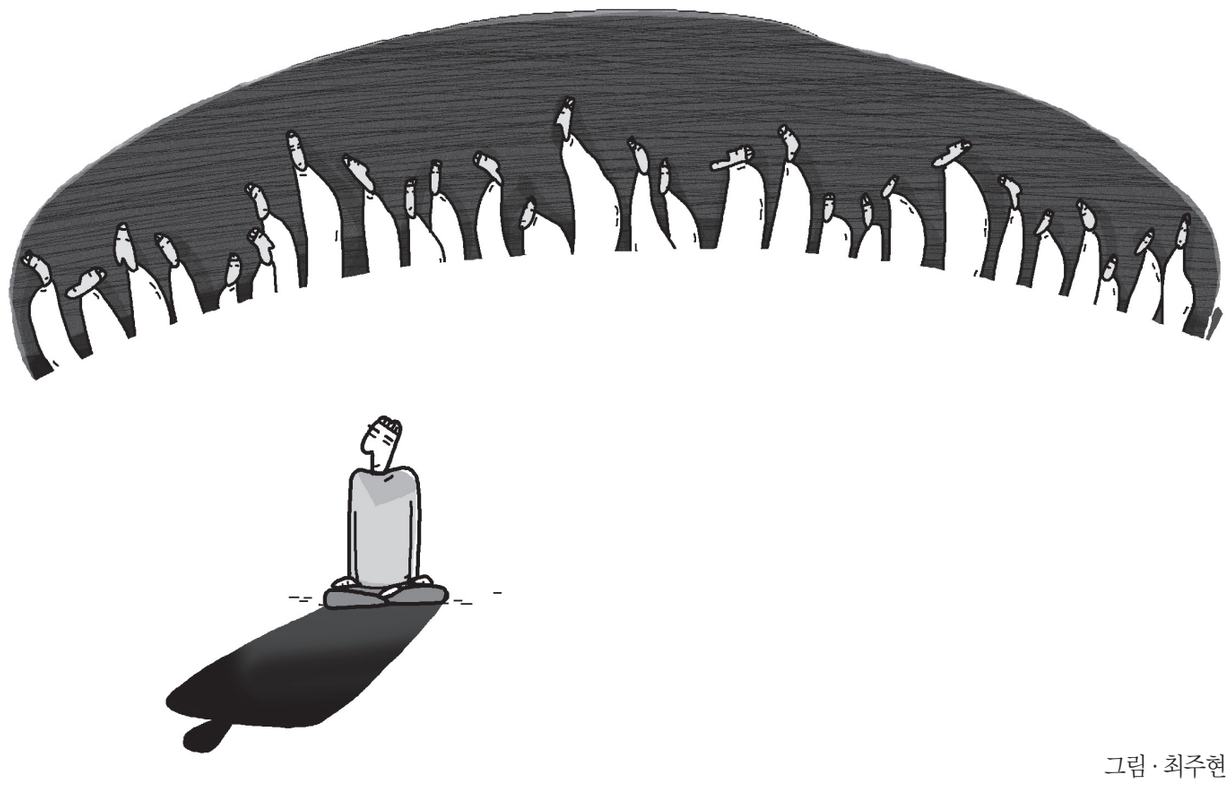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중국의 어느 사람이, 다른 거는 하나도 몰라. 무식쟈야, 나처럼. 그런데도 한번 그 사람이 봐서 어떠한 약초를 갖다 쓰기만 하면 나아. 그런데 그 약초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냥 갖다 써. 왜 그랬느냐.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안 돼, 그게. 딴 사람이 그걸 갖다 쓰면 안 돼. 그게 참 이상하죠. 바로 그겁니다. 불가사의한 법! 인간의 마음이 통해서 서로 피를 좀 나누어서 주듯이, 이렇게 양면이 다 살게….

지금 시대의 연구는, 과학적이든지 뭐든지 의학적으로도 연구하는 건 꼭 하나를 죽이고 연구하고, 꼭 하나를 죽여야만 하나 살리고 이런 연구들을 합니다. 우리가 전부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면 인과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법계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인과에 걸리지 않죠. 왜? 인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예가 있죠.

벌써 작년 일인가? 몇 달 됐죠, 아마.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선원의 어린이 법회에 나오던 애가 죽었답니다. 죽어 가지고, 이 애를 도로 돌려 달라는 겁니다. 부부가 말입니다, 울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한편 당황하기도 하고, 한편 저걸 위로를 어떻게 해 줘야 될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무참히 입을 딱 다물고선 가만히 있었죠. 있다가, 무뜩 그저 위로해 준다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래요. 당신이 또 낳으면 되잖아. 그 애가 죽었으니까, 그 애가 바로 당신한테 또 태어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위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집은 그 딸이 아들로 변해서, 화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지금 현재에 사는 이 진리가 그러하다는 걸 생각하지도 않죠? 누구든지 그것이 불가사의한 일인데, 어렵다면 어렵고 돈을 억만금을 줘도 그렇게는 못 하는 일이고, 또 억만금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 순간순간 만나서 그럭할 때에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하는 당황한 마음에서 탁 한마디 그냥 해 버리는 게 자기가 그걸 다 짊어지는 거죠. 말할 때는 쉬워도 그 뒤를 감당하는 거는 참으로 회향이 어렵다는 문제가 뒤따르죠. 그래서 말이 문제가 아니라, 대답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뒷감당하는 게 문제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있죠, 또. 여러분이 무 자 화두나 화두를 가지고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엇갈리죠. 그러면 "야, 그냥 우리가 사는 생활이 참선이며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화두다." 이러죠, 나는. 그렇게 쉬운 말로 그냥 하죠.

그런데 딴 사람이 만약에 화두를 줬다 이런다면 그게 끊어질까 봐요, '이 뭣고?' 하고 하여튼 끊어질까 봐 애씁니다, 밤이나 낮이나 일할 때나. 그래 하루 종일 일하다가 끊어졌으면 '아이고, 오늘도 그거를 또 놓쳤었구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놓쳤다고 생각을 한다면 진리는 지금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데 만날 도로아미타불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깥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끊어질까 봐 애를 쓰니 자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없고요. 마음으로 이것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헛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딜 지나가다가 묘한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들었어. 그리고 단풍잎이 우수수하게 떨어졌어. 그럴 때 지나가다가 한번 딛고 '부스럭' 할 때 생각해 보는 마음. '그 돌이 묘하게 생겼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 '말없이 지켜볼 수 있는 너. 누가 너를 깨트려 간대도 말이 없고, 잘나간대도 말이 없고, 두고 본대도 말이 없고, 너는 그냥그냥 이렇게 잠자코 서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의정. 응? 그런 의정을 낸다면,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도 의정을 내는데, 그렇게 내는 거는 그냥 생각하고 의정을 내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화두 받은 거는 절대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거 끊어질까 봐 말입니다. 이러니 이게 돌아갑니까? 이러니 참 어렵다 이겁니다.

인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하곤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역사도 그렇게 가져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지금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남한테 화두 받아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졌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게 뭣고?' 할 때는 헛돌아간다 이거죠. 예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과학도 발전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됐을 때, 침체됐을 때 그때는 '이거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